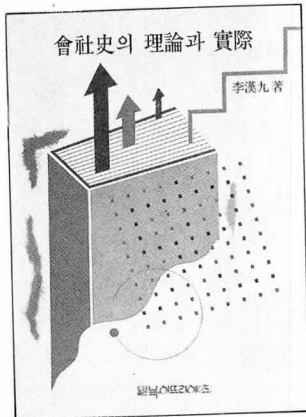


社史 편찬의 이론 및 실무 지침서

이한구 지음 「會社史의 理論과 實際」



會社史. 최근 우리나라에는 각 기업의 역사, 즉 社史의 편찬·발간이 붐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역사' 혹은 '연륜'이 쌓였다는 사실과, 기업문화도 많이 성숙했음을 증거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각 「社史」는 시지프스적 노고의 결과물이라는 느낌이다. 사사편찬의 방법론이 부재한 만큼, 각 편찬자들은 외국의 사례를 뒤적여가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會社史의 理論과 實際」는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사사 개론서'이다. 지금까지는 사사의 편집실무 및 제작과정 등 실무자를 위한 사사집필의 길잡이책 정도가 있었다. 그것도 「편집실무」 등의 한 장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수원대 경제학과 이한구 교수(43)가 이번에 내놓은 이 책은 사사의 본질·목적·기능·활용성 등에 대한 이론적 접근·정리를 시도한다. 저자는 발간의 취지를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 사사문화가 일천한 관계로 지침서 한편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사서술방법 역시 미숙하다. 이 책은 사사에 대한 이론적 연구서이자 제작실무 지침서에 해당한다. 저술방법의 질적 향상과 사사문화 발전에 일조하는 데 일익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에 의하면, 우리 사사문화의 맹아기는 1950년대이다. 한글로 서술된 最古의 사사는 1955년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50년사」와 조선전기주식회사(오늘의 한국전력)의 「10년사」로 추정된다. 60년대는 준비기, 70년대는 심화발전기, 80년대는 정착기인데, 그것은 사사문화의 발전과정이 “우리나라 공업화와 보조를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경우 80년대부터 “사사붐”이 일었고,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나” 우리의 몇몇 기업도 80년대 들어 周年사업의 일환으로 사사를 발간했다. 그 여파가 경쟁적으로 과급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도 사사붐이 조성되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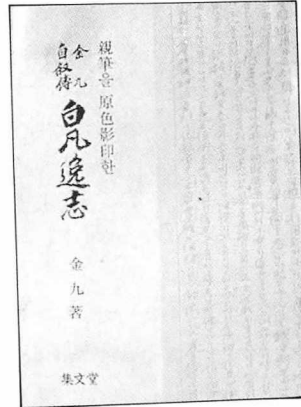
저자는 사사 발간의 필요성을 기업의 대국민 의무이자 서비스라고 요약한다. 오늘날 대중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기업정보의 태반은 단편적이고 부정과 비리에 대한 폭로물이라는 진단이다. 따라서 “회사는 기업의 역사적 정보를 내부자료에 근거하여 기술되므로 자사의 경영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최선의 서비스가 된다”.

이 책의 제1편은 국내외의 회사사 발간추이 및 실태를, 제2편은 이론적 접근과 회사사의 구조를, 제3편은 제작실무를 다룬다.

북아프리에 / B5변형 / 320면 / 36,000원

육필 숨결 생생히 살아있는 영인본

집문당 펴냄 「白凡逸志」



첫째 소원도, 두셋째 소원도 오직 독립이었던 김구 선생의 자서전인 「백범일지」의 원본 영인본이 나왔다. “친필을 원색영인한” 「白凡逸志」(집문당)가 그것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원고용지에 써내려간 그의 육필과 그의 숨결이 생생히 인쇄돼 있다. 곰팡이 슬고 습기가 번진 자국을 그대로 담았고, 탈고된 지 60여년이 지난 원고용지 자체가 훼손된 흔적도 드러나는 등 역사와 세월의 풍상을 겪은 원본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백범이 사용한 원고지는 국무원 용지. 세로 30줄, 가로 15줄의 1매당 450자 세로쓰기 원고지다. 1칸1자로 쓰지 않고 두칸에 서너자를 ‘우겨넣고’ 있다. 다소 특이한 것은 두 아들에게 보내는 ‘유서’ 형식의 제1부를 집필하던 당시는 임시정부의 재정상태가 형편없던 시절이었는데, 두칸에 세 글자 정도가 적혀 있다. 그에 비해 윤봉길 의사의 거사 등으로 독립자

금이 답지해 다소 ‘살림이 쪼들’ 시기에 집필했던 제2부에는 두칸에 네 글자 정도가 등지를 들고 있다. 그밖에도 백범 연구가나 호사자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촉발하는 많은 부분들은 원본만의 미덕이기도 하다.

이 영인본을 출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백범의 차남 김신씨-‘땅에는 엄복동, 하늘에는 김신’이라던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기 조종사이자 전 공군참모총장-은 후기에 이렇게 적어놓았다.

“그 동안에 「백범일지」 원본을 구하여 읽고자 하는 국민들이 다수 있었고, 학계에서는 정직한 백범연구와 독립운동사 연구를 위하여 원본을 읽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연구기관에서도 원본의 存否를 묻고 그 복사를 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백범일지」가 처음 활자화된 것은 1947년 12월 15일. 「國土院」에서 출간된 것이다. 원문을 당시 철자법에 준하여 교정·윤문하고, 부록으로 백범이 자신의 정치철학을 피력한 명언설문 「나의 소원」을 수록한 판본이다. 그 후 오늘날까지 그 국사원판을 정본으로 삼은 여러 판본이 단단없이 선보이고 있다.

“汝等은아직나히열이고”로 시작되는 「백범일지」는 그의 두 나이 어린 아들에게 유서 대신 써내려간 자서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라는 직함으로 인해 그의 생애가 이미 公인의 그것이고, ‘죽어도 소원은 독립’이라는 그의 지조는 혈육의 정을 넘어서는 경지였기 때문에 「백범일지」는 자서전이자 독립운동 史書이기도 하다.

집문당 / A4 / 250면 / 25,000원

최신 정보에 의한 가장 좋은 컴퓨터서적!!

첨단 컴퓨터서적 전문출판!!
크라운출판사

서울특별시 중로구 연건동 273-12 TEL:745-0311~3 FAX:741-3231

- **최신컴퓨터용어대사전**
최신용어를 빠뜨리지 않고 수록하였으며, 한글 색인을 수록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게 편집하였다. 컴퓨터용어사전편찬위원회 편/15,000원
- **반가워요 MS-DOS 6**
하드디스크를 압축하여 2배로 쓸 수 있는 Double space, 메모리 최적화 기능의 Mem Maker DOS, 바이러스 검색과 제거 등 다양한 기능이 수록되었다. IDA 그룹 저/8,000원
- **DOS! 너 잘 만났다**
컴퓨터의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써 기초를 튼튼히 해주고 그림과 함께 설명하여 지루하지 않고 쪽쪽 머리에 들어온다. 조현목·임용훈 공저/6,500원
- **자세하게 배우는 dBASE III PLUS**
dBASE 명령어의 사용법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PROGRAM 작업에 적용할 수 있게 체계적인 순서를 알아주었다. 손희정 저/7,000원

- **dBASE 3+와 CLIPPER 실습**
dBASE 패키지와 클리퍼의 명령어, 다양한 함수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박양재 외 3인 공저/15,000원
- **강의식으로 배우는 Lotus 1-2-3 R. 3.4**
아이콘 패러디 등을 중심으로 실습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서영준 저/8,000원
- **FoxPro 2.5**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 명령어와 함수, SQL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김윤희 외 4인 공저/11,000원
- **윈도우즈용 Adobe Photoshop V.2.5**
2차원 통합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광고디자인, 전자출판, 애니메이션, 순수미술 등에서 완벽한 재료를 해냅니다. 안중환 저/12,000원

- **한글 윈도우 3.1**
한글 윈도우 3.1을 그림을 곁들여 설명하여 초보자도 자유롭게 Word Processor, Graphic Editor, CAD프로그램 등을 쓸 수 있게 하였다. 이희조, 노중수 공저/12,000원
- **MS-ACCESS(윈도우즈용 데이터베이스의 절정 고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 지원, ·테이블, 폼, 쿼리, 리포트, 매크로, 모듈 등을 포함하는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등을 수록하였다. 지구동호회 저/11,000원
- **배치파일**
배치파일로 프로그래머들만이 만들 수 있었던 여러가지의 간단하고 편리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이택수 외 1인 공저/8,000원
- **AutoCAD R.11+R.12**
AutoCAD 설치하기 및 들어가에서 AutoCAD의 SETUP에 관한 명령어, 기타 UTILITY, 3차원까지 AutoCAD의 모든 것을 실었다. 주봉출·김정희 공저/10,000원

- **MAC, IBM 우리는 친구**
매킨토시와 IBM-PC의 자료교환을 중심으로 하여, 맥의 기본 지식과 PC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매킨토시를 설명하여 이해를 도왔다. 김진호 저/7,000원
- **컴퓨터 바이러스(예방·치료)**
컴퓨터 바이러스의 발생 원인과 퇴치 방법, 백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하여, 예방과 치료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석철 저/12,000원
- **내가 만드는 컴퓨터**
컴퓨터의 제작 및 각 에러에 대해 사용자 본인이 응급조치 할 수 있게 했으며, 사용자와 컴퓨터간의 친밀도를 높게 하였다. 이원재 저/7,000원
- **신세대 트리오 DOS 6.0+한글 2.1+한글 윈도우 3.1**
한권으로 3가지의 기능을 담고 있는 다기능 신세대용 책이다. 류재구 저/12,000원

- **한글워드 5.0**
고급의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워드 아트 기능이 있으며, 한글 워드로 100% 편집을 실현하는 워드프로세서의 진가를 보여 준다. 임용기 저/8,000원
- **한글 2.5**
편집중심, 예문풍부, 화면 편집 100%, 지원배치, 연관된 기능, 권장치체서, HP4 600dpi, 책자편집의 실례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최일우 저/8,000원
- **PC 사용자 가이드**
컴퓨터 바이러스, dBASE III PLUS, LOTUS 1-2-3, 포트란 등에 관한 기본 상식과 클리퍼 컴파일러 사용방법, Turbo-C Ver 2.0, 윈도우즈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최형우 외 3인 공저/10,000원
- **HYPERTEXT COBOL-85**
예제프로그램에 대한 기억장소 배치도(Memory Map)와 순서도(Flow Chart), 코딩(Coding)을 설명하였고 실기 시험 문제도 수록하였다. 허병연·허희연 공저/12,000원

편집체제 쇠신한 교양인의 미술문고

열화당 펴냄 「현대미술의 상실」 외



근래의 우리 시각환경은 실로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이미지 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양의 이미지들이 갈래와 매체를 달리하면서 쏟아지는 형편이다. 시각환경의 이러한 양상은 이른바 신세대 논쟁이나 대중문화에 대한 새로운 주목 등과 착종되면서 더욱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어 보여준다.

이러한 때 열화당 미술문고가 새 단장을 하고 제2의 도약을 선언하고 나섰다. 열화당 미술문고는 지난 75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하면서 미술학도나 인문교양을 바라는 여러 독자층의 사랑을 받았던 시리즈. 사회과학 일반도의 경직되고 불균형한 교양을 바로잡아 온, 국내 유일의 문고판 미술 대중화시리즈인 열화당 미술문고가 출간을 멈춘 것은 80년대 중반의 일이었다.

새로운 편집체제를 갖추고 1차분으로 나온

다섯권은, 톰 울프의 「현대미술의 상실」, 알랭 보스케의 「달리와의 대화」, 미리암 린스트럼의 「아동의 미술세계」, 폴 고갱의 「노아 노아」, 장 루이 페리에의 「피카소의 게르니카」 등이다.

「현대미술의 상실」은 “보는 것이 곧 아는 것”이라는 말을 부정한다. 현대미술이 완전히 문예적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그림이나 다른 미술작품들은 오직 文意를 예시하기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곧 보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노아 노아」는 폴 고갱의 타히티 체류기이자 그가 감행한 문명 탈출기이고, 강렬한 색채와 장식성으로 현실과 환상을 접목시켜 깊이 있는 상징체계를 구축한 그의 독자적 화풍과 짝을 이루고 있는 책이다.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2차대전 직전 수년간의 정치적 문맥을 통해 「게르니카」를 이해하고 있다.

또한 아동들의 그림(낙서)을 통해 그 세계관을 엿보고 있는 「아동의 미술세계」도 불만 한 읽을 거리를 제공한다. 공상의 생동함, 역동적인 자발성, 정서반응의 강렬함, 만들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열정적인 기쁨 등이 아동들의 그림에서 보이는 특징이라고. 「달리와의 대화」는 초현실주의자 달리의 미술관, 세계관을 보여준다.

오는 11월과 내년 2월에도 각각 다섯 권씩을 선보일 이 시리즈는 기존에 출간된 책들 중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들을 선별하여 펴내는 것으로, 역주와 누락된 내용을 보강했다. 특히 3차분부터는 새로운 책을 출간할 계획이다.

열화당/B6/각 150면 내외/각 5000원

폴리처상 수상한 감동적인 '예술만화'

아트 슈피겔만 지음 「쥐」



만화로서는 최초로 폴리처상(92년)과 구겐하임상,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한 미국의 만화가 아트 슈피겔만의 「쥐」(원제 MAUS)의 우리말 번역판이다. “끔찍하지만 감동적인 예술작품” “개념과 실행단계에서 전율을 안겨주는 팔목할 만한 작품이며 동시에 장편소설이자 다큐멘터리이고 자서전이며 만화이다. 눈부시고, 눈부실 뿐이다”는 등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작품이다.

만화의 내용은 나치 치하의 만행을 겪은 아버지와 그 아들인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 2차대전 이후 출생한 작가 아트 슈피겔만은 그의 부모가 2차대전 당시 겪었던 일을 고스란히 이 만화에 담고 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가 부친의 회고를 기록하기 위해 뉴욕 레고 파프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아버지 블라텍은 청년시절 폴란드에서 직물을 짜는 영세상인. 그는 1937년 소스노

비에츠의 부유한 양말제조업 가문의 아나 질 버베르크와 결혼한다. 두 사람에게서 태어나기 전 리슈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2차세계대전의 와중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 블라텍과 아나는 강제로 게토에 끌려가고 간신히 그 미술에서 벗어나 은신처를 찾지만,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나치하의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공포의 시기를 겪어야만 했다. 첫권은 아버지 슈피겔만이 살아남기까지 겪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 둘째권은 이러한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경험을 한 세대가 가질 수밖에 없는 갈등에 관해 그리고 있다. 그리고 동물을 의인화하여 나치를 '고양이'로, 그들의 박해를 받은 유대인을 '쥐'로 표현한다. 톰과 제리의 우호관계가 여기선 성립하지 않는 셈이다.

2권의 부록에 달린 작품해설에서 조엘 개릭이 말하고 있듯 “이 책을 처음 펼치던 독자들은 잠시 당혹감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면서 서서히 내용속으로 빠져든다”. 그 말은 이 만화의 형식이 여태껏 우리가 알고 있는 만화와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서문을 쓴 이원복(만화가, 덕성여대 시각디자인) 교수의 말도 그런데, 「쥐」를 통하여 우리는 “만화의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게 된다.” 그만큼 그의 스타일은 첫순간에 독자를 유혹하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생소하여 실패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기면서 독자들은 갑갑함을 벗어나 감동에 휩싸이게 되면서, 이 작품에 쏟아진 찬사의 분명한 이유를 확인하게 된다.

아름드리/A5신/160, 154면/각 4500원

韓國古小說批評資料集成

柳鐸一 著/신국판/15,000원

본서는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는 「王朝實錄」所載의 고소설관계기사를, 2부에는 序·跋·題·評을 모았으며, 3부에는 前言, 後言, 廣告를, 4부에는 한국유입의 중국소설의 序·跋·題가, 5부에는 活字本 소설의 版元別 관련지 및 廣告가 실려 있다.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2 — 문협정통과의 사상구조 —

金允植 著/신국판/12,000원

본서는 김동리에 의해서 정립되고, 조연현을 거쳐 서정주·유치환·조지훈에 의해 창작으로 이루어진 문협정통과의 문학사상인 「구경적 삶」의 형식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한 것이다.

북경대학과 북경시의 우수연구저작 1등상!
중국 단과 및 종합대학출판사의 우수도서 특등상 수상!

中國詩歌藝術研究(下)

袁行霈 著, 朴鍾赫 外 역/신국판/10,000원

본서는 북경대 원행패 교수의 「중국시가예술연구」의 하편으로써 이백 등 중국역대 대표적 시인 13인의 예술작품에 대한 특색, 풍격, 성취를 논하였으며, 시인의 인격과 풍격, 시가의 주장과 성취, 예술의 연원(淵源)과 창신(創新)을 서로 소통시켜 논술하고 있다.